



인제군(http://www.inje.go.kr)

발행인:인제군수 / 편집:기획감사실
252-807
강원도인제군인제읍인제로 187번길8
☎ 033) 461-2122~9
FAX 033) 460-2019



군기



군목:주목



군화:절쪽



군조:백비둘기



도시브랜드



슬로건
하늘내린 인제

合江消息



contents 지면안내

포커스 / 2·3면 

**관광주간내 할인혜택
모험레포츠 시즌오픈**

특집 / 4면 

행복리 센터 본격 가동

 **UN대학 RCE
지속발전가능교육도시
인제생명사회실천운동**



자연을 먹는다
인제농특산물 5대명품

제69회 식목일 행사



▶김운기 산림복지과장이 행사 개요와 숲가꾸기 좋은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제군청직원들이 메타세쿼이아를 정성스럽게 심고 있다.

메타세쿼이아 · 단풍나무 소양강 들레길 명품 단장

전국 최대규모의 산림을 자랑하는 인제군은 남면 관대리 소양강 들레길 제2코스를 전국민이 찾아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명품산소길로 탄생시켰다.

인제군은 지난해부터 이곳을 아름다운 숲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테마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소양강 들레길 제2코스 입구부터 4km까지 메타세쿼이아와 단풍나무 1천500그루를 심어 사업을 마무리 했다.

제69회 식목일을 열흘가량 앞둔 이날 인제군의 미래를 심는다는 주제로 마을주민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공무원 등 모두 200여명이 참여해 펼친 식목행사를 진행하면서 더욱 건강한 인제군 푸른 숲에 대한 꿈을 부풀렸다.

특히 이날 심은 메타세쿼이아는 한류를 이끌었던 드라마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겨울동화 촬영지인 남이섬에 숲을 이루고 있어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수종이다.

이로써 인제군은 지난해 4km 구간에 메타세쿼이아 1천 그루와 38모형의 안보상징물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 마무리 식목행사로 마련해 당초 계획한 8km 모든 구간에 메타세쿼이아와 단풍나무 2천500그루의 나무를 모두 심었다.

최근 숲이 휴식·치유·교육의 공간으로 떠오르면서 국민적 관심이 늘어 숲을 찾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양강 들레길 제2코스가 접경지역 스토리와 함께하는 트레킹을 제공하는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림복지과>

인제 나르샤 파크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의 새 이름입니다

인제군 인공폭 늘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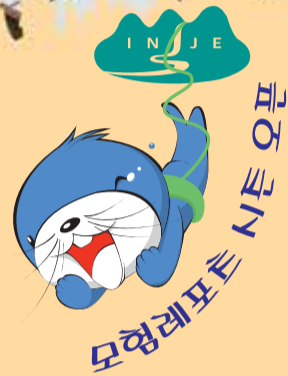
합 계 32,800명 ▲ 56

3월말 현재(기획감사실)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9,879명 ▲ 2	3,929명 ▼ 3	8,808명 ▲ 42	5,331명 ▲ 33	3,212명 ▼ 3	1,641명 ▲ 15

기지가 떠는 산악 모험 레포츠 에너지 쟁취



화창한 봄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험레포츠의 천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제군의 산과 들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관광주간인 오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모험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돼 올 여름은 그 어느해보다 뜨거운 레포츠 계절을 예고하고 있어 모험레포츠 마니아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스캐드 다이빙을 비롯해 서든어택 등 인제 나르샤파크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번지점프 등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광객은 이용료의 20%가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와 함께 모험레포츠 연수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에 숙박료 10%의 할인 혜택이 주어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인제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산촌민속박물관을 비롯해 여초 서예기념관, 박인환 문학관, 공공미술관 등은 관람시설에 대해서는 무료 입장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할인 혜택은 최근 해외 여행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통해 국민관광여건 개선하는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에 인제군이 적극 참여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인

제군에 유치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인제군 모험레포츠는 민선1기인 지난 90년대말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인제군의 관

광개발 정책의 가장 중요한 테마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다양하고 풍부한 모험레포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전국 최고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5월 1~11일 관광주간 20% 할인혜택

○ 나르샤파크

기존의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가 날아 오르다라는 뜻을 지닌 순수 우리말인 나르샤파크로 이름을 바꿔 새 단장하고 문을 열었다.

이곳에는 독일에서 처음 개발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스캐드 타워가 마련돼 있어 스캐드 다이빙은 물론 스카이 워크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스캐드 다이빙은 스캐드 타워를 이용해 지상 50m까지 올라가서 25m까지 자유낙하의 짜릿함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인기 온라인 게임으로 유명한 서든어택어리어를 오프라인

3면으로 이어집니다

2면에서 계속됩니다

에 실제로 구현한 서든어택 웨어하우스도 즐길 수 있다. 이용문의는 인제나르샤캠핑장(☎033-461-0141).

○ 내린천 래프팅

내린천 래프팅 기본코스는 원대교를 출발해 밤골캠핑에 이르는 8km구간이다. 국내 최고 청정지역을 가로질러 흐르는 급류지역이 길고 물 흐름의 빠름과 나선이 절묘하게 반복돼 최적의 급류 래프팅 코스로 평가받고 있다.

원대교를 출발하면 곧바로 거친 급류와 함께 시작하는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는 코스 중간 이후에 만나는 피아시 급류지역이다. 이 지점은 700m나 연속적인 급류는 보트를 삼킬 듯 거칠게 흐르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통과할 수 있다.

도착지인 밤골캠핑까지 휴식 시간을 포함한 두 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는 짜릿함을 가득 채워져 있어 중독성이 강한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용문의는 인제관광정보센터(☎033-460-2170 · 1588-6226).

○ 미산리 리버버킹

리버버킹은 혼자힘으로 래프팅을 즐길 수 있도록 고안한 레저 스포츠이다. 뉴질랜드에서 개발한 리버버그라는 기구를 이용해 급류를 즐기는 것으로 이 기구의 겉모습은 튜브와 보트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팔과 다리를 이용해 급류를 헤쳐 나간다.

카약처럼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든 간단하게 교육만 마치면 손쉽게 즐길 수 있어 래프팅만큼 짜릿한 스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용문의는 미산레포츠(☎033-463-8254).

○ 내린천 짚-와이

내린천 짚-와이어는 비록 와이어에 매달려 허공을 질주하는 것이지만 발 아래 내린천의 거친 물살을 내려다 보며 넓은 강을 가로지는 짜릿함을 그어느 것과 비교해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따라서 무섭다고 눈을 감지 말고 내린천의 구석구

석을 살펴보면서 주변 경치의 아름다움을 눈 속에 담아내는 즐거움은 대자연의 참 맛을 선물해주고 있다.

이용문의는 (주)포시즌레저산업(☎033-462-0701).

○ 번지점프

합강정 공원내에 우뚝 서 있는 번지점프는 국내 최고인 63m를 자랑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주의 번지박사의 기술로 만들어져 최고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일단 정상에 올라서면 내린천 일대의 풍광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흥분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도약대에서 허공을 향해 뛰어 오르면 한마리 새가 되듯 무한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이용문의는 (주) 아름다운 인제관광(☎033-461-5216~7).

○ 4륜오토바이(ATV) · 아르고

4륜오토바이는 내린천 강변을 따라 비포장길을 달리며 푸름이 가득한 거친 들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엔진에서 전해오는 묵직한 진동과 시끄러운 기계음의 터프함으로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르고는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4륜 오토바이 기능에 물 위도 달릴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수륙 양용 오토바이이다.

이용문의는 내린천ATV(☎033-461-0372) · 남전1리 주민협의회(☎033-463-4472).

○ 매바위 아이언 이언 웨이

매바위 아이언 웨이는 98m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폭포수를 곁에 두고 금속발판과 고정된 케이블에 의지해 암벽을 오를 수 있는 신약 루트이다.

마치 프로 신약인이 된 듯한 느낌으로 발밑에 한쪽의 그림과 같은 풍경을 밟고 한발 한발 정상을 향하는 쾌감은 최고의 스틸을 전해준다. 이용문의는 (주)아이언웨이(☎033-462-0035) <문화관광과>





▶ 자연 속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료로 건강음료를 만들 수 있는 약선차 강좌.

배움을 통해서 삶의 질과 품격을 높여가는 평생학습도시 인제군은 지난달 14일 인제군청 소회의실에서 남면사무소, 기린면사무소, 서화면사무소 등 3곳의 행복리 거점센터와 인제읍 하추리·가리산리, 남면 신월리·갑둔리, 북면 용대 2리·용대 3리·월학 1리·월학 2리, 기린면 진동 1리, 상남면 미산리·상남 3리 등 11개 작은마을 행복리 센터 등 모두 14곳의 현판 수여식을 갖고 힘차게 행복을 향해 뜻을 올렸다.

면학분위기 조성 18개사업에 21억원 투자

이미 지난해부터 마을이 선정돼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선정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학습선정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학습효과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복리 센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자신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2~4개의 운영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모두 50시간 범위내로 강좌를 구성해 읍면사무소에 이달말까지 접수하면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료가 지원된다.

또한 행복리 센터는 강좌프로그램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학습 동아리 모임이나 배달 강좌제 강의 장소로도 이용될 방침이다.

행복리 센터 지역주민의 학습욕구·인구 특성·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마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행복 학습매니저 양성과정 ▶지역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과정 ▶자격증 과정 등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평생 교육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인제군은 11개 행복리 센터 운영 이외에도 지역별 군부대 아파트 3곳을 작은 마을 행복리 센터로 확대



▶ 간단한 동작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높은 국학기공 강좌.



▶ 인제 5대 명품가운데 하나인 콩을 소재로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요리 강좌.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지정되는 작은 마을 행복리센터 역시 센터로 지정됐음을 알리는 현판 설치가 의무화 된 가운데 센터별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마을 센터 운영 및 관리·신규 학습 마을 준비 등 전반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마을 대표(임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 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는 오는 7월 중 자치행정과 교육협력부서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1차로 요건 심사를 마친 마을 또는 아파트에 대해 신청 자격 적합성 판단해서 현장 점검, 대표자 면담심사 등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심사 기준은 장소의 적합성, 참여의 적극성, 마을 개방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인제군은 행복리센터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복 학습매니저를 양성할 방침이다. 행복학습매니저는 지역사회 자원 활동 및 평생학습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복학습상담, 관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학습 지도자이다.

행복학습매니저는 학습에 대한 장소·기자재 준비·사진·물품 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뿐만 아니라 학습자 출석관리와 강의 일지·강의 확인 등 강사관리, 행복학습 공동체 회의를 통한 학습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작은 마을 행복리 센터는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사업으로 지역의 공공장소 및 유휴시설을 활용해 생애주기·계층·지역에 따라 보다 다양한 평생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전 국민이 언제·어디서나 쉽게 접근해 학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계이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자치행정과 평생교육담당(☎033-460-2022)으로 하면 된다. <자치행정과>

진흙 역세척 안정적 수돗물 공급

인제군은 취수장 집수거 여과층을 효율적으로 세척해 집수정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급수 중단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인제군 상하수도 사업소 한원호 담당·김재문 담당·오창준·송진호·박영록 직원 등 모두 5명의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집수매거의 여과층 역세척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해 지난달 인제군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잦은 흙탕물 때문에 하천에서 취수장을 물을 끌어 오는 집수매거 상부에 침전물이 가라앉아 원활하게 물을 끌어 들이지 못하게 됨으로써 집수정 수위가 낮아져 정수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에 착수했다.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수 확보를 위해 하

상수도집수거세척 특허 취득

천바다에 설치한 집수매거에 유공관(여러 개의 구멍이 나 있는 관)을 설치해 물을 끌어 들이고 있다.

이 유공관의 효율적 관리가 수돗물 생산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특허받은 기술은 장마 등으로 발생한 흙탕물의 침전물이 가라앉아 유공관의 구멍을 막아 집수정으로 물이 흘러드는 것을 방해하는 진흙더미를 손쉽게 청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우선 취수장의 물높이를 하천 수위보다 높게 한 상태에서 유공관으로 연결된 밸브를 열어 공기를 불어 넣어 유공관을 통해 역분출되는 물로 집수매거의 여과층에 쌓인 진흙을 주기적으로 씻어냄으로써 집수매거 청소작업 시간 단축은 물론 작업 비용 절감과

취수량 부족에 따른 집수매거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이끌어 냈다.

따라서 인제군은 이번에 취득한 특허를 현재 추진 중인 현리-상남 통합 상수도 확장 공사에 적용 운영할 계획이다.

인제군은 이외는 별도로 지난해부터 상시 누수탐사 전담팀을 구성 운영해 약 51개소의 누수지점을 찾아 복구해 연간 약 12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본 가운데 정수장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연간 326천kw의 전력을 절감함으로써 약 4천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인제군은 지난해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16개 시·도, 15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물 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 결과 군단위 전국 1위에 오른 가운데 지난달 20일 전국상하수도사업소 주최로 개최한 '2014 water korea 상하수도업무 개선사례 발표회'에서 전국상하수도협회회장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아름다운 봄 꽃! 자연은 우리 친구!

인제군은 어린이들에게 흙의 중요성과 식물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봄꽃심기 체험교육을 마련해 지난 달 31일 시작해 지난 4일까지 5일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했다.

인제오토테마파크 정상화 눈앞

인제군, 적법절차에 의해 운영사 변경 승인

그동안 표류하던 인제스피디움이 제자리를 잡고 정상 운영에 한걸음 더욱 다가가 모험 레포트 메카로써 인제군의 명성을 이어가게 됐다.

인제군은 지난달 31일 인제스피디움이 운영사를 KRF에서 블루온과 이노션으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에 대해 지난 18일 적법절차에 의해 승인 통보했다. 인제군은 운영사 변경신청과 관련해 최적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자문위원회의에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건의한 결과 교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같은 승인 결정에 따라 인제스피디움은 호텔 및 콘도시설에 대해서는 블루온이, 경주시설은 이노션이 각각 새로운 운영사로 지정돼 관리 운영하게 됐다.

따라서 인제스피디움은 이른시간에 인제 오토테마파크를 정상 운영하기 위한 운영 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민간투자법에 따른 준공신청을 인제군에 접수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인제군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특이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이 또한 승인해 지금까지 논란되고 있던 모든 문제를 정리해 인제스피디움의 정상화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경제과>

지역발전 걸림돌 제거 규제개혁팀 신설

불필요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위축됨으로써 지역발전과 일자리 만들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행정부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의 거해 규제개혁을 담당할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됨에 따라 인제군은 지난 1일자로 기획감사실에 규제개혁팀을 신설해 지역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 및 폐지 등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설된 규제개혁팀의 주요 업무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

괄정비는 물론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지자체 규제개혁 유인체계 구축, 지방규제 개혁위원회의 내실화 등이다.

전국 중소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태도와 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이 60%로 나타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인제군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교육 및 실태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사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제군은 군청 청사내

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규제에 의한 애로사항 등의 피해사항을 적극 접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해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문의는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033-460-2017)으로 하면 된다. <기획감사실>

북2리, 오지체험마을에 선정

기린면 북2리가 강원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발전과 함께 마을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로써 북2리는 총 사업비 5억원을 들여 현대화되고 디지털화된 도심에서 벗어나 재래식 생활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오지마을을 조성하고 산촌의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양한 힐링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북2리는 지금은 사라져 볼 수 없게 된 너와집, 초가집 등 전통 산촌 생활 풍경을 재현하고 재래식 생활시설, 농사체험장, 전통대장간, 생활도구 제작장 등 다채로운 체험 기반시설을 올해 말까지 조성한 후 내년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화관광과>

한계리 레미콘공장 불승인

인제군은 양구에 있는 한 업체가 북면 한계리 2만여㎡ 부지 위에 레미콘 생산설비와 부대시설을 갖춘 레미콘 공장 설립 승인신청서를 지난달 11일 접수 받아 한달여 동안 타당성 등 검토한 끝에 지난 18일 불승인을 통보했다.

승인 신청한 레미콘 공장 설립 예정부지의 위치가 군부대 사격장과의 거리가 1km가 채되지 않는 곳으로 장병의 생활관과 식당이 너무 가까이 있어 군부대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의 결격사유가 있어 승인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인제군의 입장이다.

게다가 대기오염물질 영향 및 저감방안 등 관련 서류 또한 갖추지 못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자체가 어려워 불승인 통보가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제군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물론 군부대와의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했으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레미콘 공장 설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역경제과>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발대식

인제군은 지난달 20일 오후 1단계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참여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 및 안전 보건교육을 마쳤다.

생활 불편 ☎460-2031로 신고

인제군은 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과 갖가지 작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기동 민원 처리반을 설치·운영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말 기준 모두 1천499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올해에도 가로등 민원, 불법광고물 민원 등 3월까지 487건을 접수받아 처리를 마쳤다.

처리된 민원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은 가로등 민원으로 모두 44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군은 올해 각종 생활 불편사항 신고에 대처했던 소극적 대응을 버리고 다양한 민원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부족했던 기동처리 전담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는 등 현장 위주의 맞춤형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가로등 고장 신고에 따른 처리 기한 단축, 주차장·버스승강장·체육공원 시설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신속한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 and 주민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활 속의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033-460-2031) 및 읍·면사무소 또는 인제군 홈페이지 내 온라인 민원상담 주민불편신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원봉사과>

‘군민패널 5·5·5’ 주민의사 과학적 관리

인제군은 군정주요시책에 대해 군민들이 직접 참여해 평가함으로써 적실성 있는 행정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는 ‘행복인제 군민패널 5·5·5’를 구축해 주민의사 수렴의 과학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군민패널 5·5·5는 패널 555명을 선발해서 이들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인제군의 긍정적인 미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인제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인제군 관내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패널 선발에 들어간

다. 따라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인제군 홈페이지(www.inje.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기획감사실 평가관리담당(☎033-460-2014)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같이 선발된 패널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만족도 평가, 행정서비스 군민평가, 군정 모니터링, 행정수요 조사, 정책 인지도 조사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인제군은 군민 패널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5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자문단은 군정시책 평가 및 여론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영

하고 간담회 형식을 통해 군정 및 평가·여론조사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제군은 오는 7월까지 패널 모집을 마치고 8월에는 세부 운영계획을 세워 위촉 및 교육을 마치는 대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군민패널 5·5·5는 공감 받는 군정을 위해 군민들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상환은 여론수렴 채널이 제한적이고 부서별 여론조사도 표본수가 500샘플 미만으로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정확한 행정수요 파악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획감사실>



쓰레기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쓰레기는 전일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

겨울철 연탄 사용에 따른 연탄재 배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정 및 상가에서 연탄재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아 수거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배출방법을 지켜 깨끗한 인제만들기에 앞장 섭시다.

아래

연탄재는 투명한 비닐봉투 또는 박스에 담아 배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수분을 제거해 배출.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병류·캔류·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 보관해 분리 수거가 용이 하도록 한다. ▶생활쓰레기 부적정 배출처리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 ▶청소차 쓰레기를 수거한 후 쓰레기를 배출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배출 시간 외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을 봤을 때 환경보호과(☎460-2016~4) 신고

인제 용대 황태산업 특구 지정 쾌거

용대리 황태산업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개최된 제31차 지역특구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인제용대황태산업특구로 지정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용대리 황태산업은 전국 황태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황태의 본고장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낙후된 산업구조와 중국산 황태의 유입 등으로 점차 위축되고 있다.

이에 인제군은 특구 지정을 통해 용대리 황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의 대표적인 성장 동력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인제용대황태산업특구 지

정을 신청했다. 이를 위해 인제군은 지난 2013년 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 지역의원견수렴, 고시 등을 걸치는 등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얻게 됐다.

이에 따라 북면 용대리 일원에 모두 132만4천167.8㎡(1천635필지) 규모의 인제용대 황태산업 특구에는 약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 돼 황태 생산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덕장 현대화와 가공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체험형 관광상품 연계 개발, 포장지 개발 등 황태마

케팅과 황태문화 및 음식거리 조성, 황태축제 활성화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며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도로법, 특허법, 식품위생법에 대해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제군은 특구가 지정됨으로써 용대리 황태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재창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인제군은 황태 테마관광지를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 하고 있다. <지역경제과>



인제 EM환경센터 준공

친환경 농업 자연환경 이정표

고품질의 EM발효액을 생산해 보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의 소득 증대와 자연환경 보전, 군민의 건강한 친환경 생활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유용미생물(EM)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제군 EM환경센터가 지난달 26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인제군 EM환경 센터는 연면적 656㎡ 규모의 2층 건물로 EM발효실, EM홍보전시실, EM체험실, EM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어 EM을 생산 보급 활용하고 교육하기에 손색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제군은 이날 준공과 더불어 김영규교수(전주대학교 EM연구개발단)를 초빙해 7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EM의 필요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2014년 제1회 EM환경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인제군은 EM환경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에 2013년도 환경 친화적 청정 산업으로 신청해 그해 6월에 지원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7억6700만원을 지원 받고 군비 5억 1천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가운데 지난해 5월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6월에 착공해 12월에 완공했다.

인제군은 EM환경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EM그린리더양성, EM친환경농업, 친환경EM생활교육, 청소년EM교육, EM의 확대보급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로써 인제군 전역에 EM을 확대해 한강수계 수질개선효과는 물론 농업인의 소득증대, 군민의 친환경 생활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M활용과 보급 등에 관련한 문의는 인제군EM환경센터(☎033-460-2186)로 하면 된다. <환경보호과>



대학탁구연맹전 인제체육관 개막

2014 회장기 실업탁구 및 제32회 한국대학탁구연맹전이 지난 3일 인제체육관에서 개막한 가운데 6일까지 4일 동안 대학탁구연맹 22팀과 실업탁구연맹 22개팀이 우승을 놓고 각축했다.

행정서비스 현장을 가다

풍수해보험 가두홍보 온 힘

방태산 고로쇠 축제 개막식이 있던 지난달 22일, 축제 안내소 앞에는 작은 부스가 마련됐다. 바로 풍수해 보험관련 가입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다.

인제군청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 직원과 상남면 산업개발팀 직원들이 나서 축제에 참가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와 같은 홍보 활동을 통해 가입한 농업인은 1명. 그러나 홍보활동을 참여한 직원들은 실망하지 않았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농업인이 관심을 가져 준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비록 성과가 작더라도 농업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꾸준히 홍보활동을 펼치면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



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안전방재팀 직원들이 이와 같이 가두 홍보활동을 펼친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민방위 대장 교육장,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발대식에서 풍수해

보험을 홍보하고 현장 접수를 이어 온 가운데 앞으로 틈이 나는 대로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올해 4월 중순 현재 43농가가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8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대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 구조금만으로는 완전한 보상이 어려워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국가 정책보험이다. 따라서 이 보험에 가입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보험 가입대상은 단독·공동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며 주택이 없는 세입자라도 세입자 동산 보험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문의는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033-460-2096)으로 하면 된다. <안전건설과>

96년이후 구입 농지 반드시 농사지어야

인제군은 지난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 규정에 의해 농업 경영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휴경하면 농지를 소유할 자격을 잃게 돼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농업 경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징수됨에 따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문의는 도시건축과 농지관리담당(☎033-460-2123)으로 하면 된다. <도시건축과>

봄철 해빙기 가축분뇨 등 유출 특별점검

인제군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강원도 주관으로 인근시·군과 함께 합동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가축분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농가에서 겨우내 쌓아둔 가축분뇨 및 퇴·액비가 유출되면서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허가대상 농가나 과거 위반사태가 있는 축산 농가와 최근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몰래 버리거나, 축사주변 농경지 등에 아적·투기하는 행위, 퇴 섞은 퇴비와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 축사 주변 하천으로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와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의 불법 설치·운영 등이다. 인제군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계법령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보호과>

미신고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인제군은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막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방치공 등 미신고 지하수 시설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난 93년에 지하수법이 제정됐으나 초기의 미흡한 행정절차로 발생한 미신고 시설이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인제군은 이와 같은 자진신고를 통해 지하수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많은 미신고 지하수 시설의 신고를 돕기 위해 자진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고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간소화 편의를 제공하고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환경보호과 수질환경담당(☎033-460-2062)으로 하면 된다. <환경보호과>

덕적리·천도2리 농촌현장포럼 착수

마을주민이 주도로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발전 테마를 선정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 활동프로그램인 농촌현장포럼이 지난달 31일 인제읍 덕적리·서화면 천도1리 등 2개 마을에서 제4차 포럼을 운영했다. 이날 외부전문가인 김종건 교수(경동대)를 초청해 새 농어촌건설운동 추진방향 및 실천사항, 의식개혁 등 주민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하향식 마을개발사업 방식에서 탈피해 주민 주도의 마을 발전 계획을 세워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상향식 발전 전략이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새 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도전하는 덕적리와 천도1리를 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농촌 현장 포럼을 통해 마련된 마을발전 테마를 새 농어촌건설운동과 연계해 마을발전계획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인제 농촌현장 포럼은 지난달 17일 1회



▶인제읍 덕적리.



▶서화면 천도2리.

행사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주민역량강화교육을 가진데 이어 제2회차 마을자원찾기, 제3회차 우수마을 현장견학을 마쳤다.

♡ 버려질 양심을 찾아주세요 ♡



나르사파크에 버려진 쓰레기

인제읍 남북리 인제 나르사파크 주변에 차량을 이용해 남몰래 생활폐기물을 버리고 간 압체족의 검은 양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인제군은 지난 15일 이곳에서 모두

200kg의 불법투기한 쓰레기를 처리한 가운데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투기자를 찾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방지된 쓰레기는 인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미관을 찌푸리게 만들며 더불어 청정인제의 이미지도 훼손시키고 있다. <환경보호과>

인제군 생활개선회 소식

릴레이 봉사활동 지역의 등불

남면 생활개선회(회장 문혜경)는 지난달 27일 다리를 다쳐 움직이는데 불편을 겪는 독거노인 집을 방문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남면 생활개선회원들은 낡은 싱크대와 장판을 교체하고 깨끗하게 집안 청소를 한 가운데 쌀과 휴지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내린음식연구회(회장 손숙자)와 인



제읍 생활개선회(회장 김은재)는 지난달 2일에, 기린면 생활개선회(회장 조만순)는 지난달 3일에 각각 떡국 등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마을 경로당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문했다.

또한 인제군 생활개선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전통장 및 전통음식 교육에 33명이 참가해 27명이 수료하는 등 앞서가는 농업인 학습 단체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농업정책과>



이달의 보건
게시판



‘해피 인제’ 복지계획 수립 워크숍

어두운 그늘없이 언제나 환하게 빛나는 하늘내린 인제를 건설하기 위한 Happy In-je' 인제군 복지계획 비전 수립을 위한 워크숍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만해마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모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다.(사진)

이날 (주)쿠팡실리테이션 구기욱 대표의 진행으로 인제군 복지계획 비전수립을 위한 비전선언문 만들기를 진행했다.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귀중하다. 인제의 복지는 우리가

완성한다'는 슬로건 아래 위원들이 그동안 담아왔던 복지에 대한 생각들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인제군 복지를 위한 비전 선언문을 완성했다.

이로써 '사람중심 소통중심 복지인제'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지역복지에 대한 핵심 과제와 전략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오는 2015년부터 2018까지 추진하는 인제군 제3기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시

점에서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지역복지의 중심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과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따라서 이날 제시된 의견은 복지계획 수립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정연지 간사는 '협의체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이란 특강을 바탕으로 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민생활지원과>

영유아·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접종 안내

인제군은 선택 접종이었던 영유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오는 5월 1일부터 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돼 무료로 접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접종기관은 보건소(지소) 및 한사랑의원 한림의원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이며 접종은 2·4·6개월 기초 3회 접종 후 12~15개월에 추가1회 접종하면 된다.

또한 인제군은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1949년 이전에 태어난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접종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이며 평생 1회 접종으로 추가접종은 없지만 만 65세 이전에 접종하신 어르신은 접종 후 5년이 지나야 접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문의는 보건소 예방접종실(☎033-460-2247)로 하면 된다. <보건소>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등 지원안내

인제군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가운데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규모는 매월 6천원이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로 입금되며 이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사용잔액은 다음해 수급권자 계좌로 입금된다. 또한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어 건강생활유지비를 사용하지 않은 2015년 이후 환급자에 대해서는 일괄 환급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산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간 초과 후 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1·2종 구분 없이 50만원(다태아 70만원)까지 1일 사용액 한도 제한은 없이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도 임신·출산과 관련해 진료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요양비는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등이 지원된다. 문의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033-460-2211)으로 하면 된다. <주민생활지원과>

자녀 2주 이상 기침때 꼭 결핵 검사

인제군은 새 학기를 맞아 자녀가 학교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반드시 결핵 검사를 해줄 것을 학부모들에게 권하고 있다.

특히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이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 재채기 후

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자녀가 어렸을 때 맞은 결핵예방접종(BCG접종)만으로는 결핵을 평생 동안 예방할 수 없음을 알리고 있다. 문의는 보건소 예방의학 담당(☎033-460-2243)으로 하면 된다. <보건소>



제1회 드림스타트 부모 교육 마쳐

○...인제군 드림스타트는 제1회 드림스타트 부모교육을 지난달 29일 하늘내린센터 강의실에서



부모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교육은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 설명 후 아동발달과 독서지도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생의 아동발달 단계별 독서지도 방법 등 독서지도 교육의 필요성 및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인제군 드림스타트는 부모와 자녀와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꿈★드림 도서관 주말휴일 개방

○...인제군 드림스타트는 평일에만 운영하던 '꿈★드림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주말 휴일에도 연장 개방하기로 했다.

따라서 꿈★드림 도서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 까지 개방하며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각각 운영된다. 이로써 보다 폭넓게 드림스타트 가족들이 장난감, 교구, 도서대여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와서 자유롭게 독서와 장난감 놀이도 할 수 있게 됐다. <주민생활지원과>

북면청소년 문화의 집 소식



2014년 강원도 청소년 연합 워크숍참여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기린·남면 청소년 문화의 집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원대리 모험레포츠 연구원에서 2014년 강원도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워크숍에 참가했다.

인제군 뿐만 아니라 홍천군과 강릉시 등 3개 시군에서 참가한 청소년 위원 120명은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한 회의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면서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북면사무소>



남면 의용소방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남면 여성의용소방대(대장 김숙자)는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가정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남면 장날인 지난 3일 찾아가는 가정 폭력 이동 상담소를 운영했다.

이어 대원 16명이 나서 주민들에게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에 관한 홍보 전단지 나눠주며 가정폭력이 없는 행복한 남면을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남면사무소>



인제읍 등 3개기관 여성 안전한귀가 협약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인제읍자율방범대(대장 김진희), 인제경찰서 상동파출소(소장 박만규), 인제읍 등 3개 기관은 지난 25일 인제읍사무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늦은 시간 홀로 귀가하는 여성이 이들 3개 기관에 요청을 하면 서로 연락 체계를 취해 걸어서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제읍사무소>

신나는 새농어촌 건설운동



소득증대 산복숭아 식목행사

인제읍 덕적리

인제읍 덕적리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이장 김병국)은 지난 7월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마을주민, 다련장부대 장병, 공무원 등 모두 85명이 참가한 가운데 산복숭아 나무 1만 그루를 심었다.

덕적리는 마을 80가구에 50그루씩 모두 4천그루를 심고 나머지 6천그루는 하천변·도로변에 심어 전국 최대·최초로 산복숭아나무도 뒤덮인 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어 수확하는 산복숭아는 식초나 잼까지의 재료로 판매해 개인 농가에도 농가 소득은 물론 마을소득 증대의 꿈을 부풀렸다. <인제읍사무소>

춘천 솔바우마을 선진지 견학

서화면 천도1리

서화면 천도1리 복사꽃 피는 마을 새 농어촌건설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염용갑)는 지난 2일 춘천시 사북면 솔바우마을(2001년 강원도우수마을)을 방문해 마을법인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 벼정미소 공장을 견학했다.

이 자리에서 솔바우마을 법인대표와 즉석에서 천도1리 우렁이벼 수매 계약 약속을 받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화관 내 회의



장에서 솔바우마을의 성공사례 강의를 듣고 경관 조형물 설치를 위한 남이섬을 견학하며 특색있는 마을조형물 설치에 대해 논의했다. <서화면사무소>

이영길 박사 초청 강의 마련

서화면 서흥2리

서화면 서흥2리 제2기 마을기업형 새 농어촌건설운동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희춘)는 지난 12일 강원발전연구원 이영길 박사를 초청해 마을기업형 추진 전 과정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이날 이영길 교수는 강원도 32개마을 우수마을 가운데 재심사를 거쳐 추진실적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심사기준은 무엇보다 제1기 사업 추진성과 및 주민 미래비전이 관건이라며 무엇보다도 마을 단합을 강조했다. <서화면사무소>

인제읍 청소년 방범단 캠페인 활동 펼쳐

학교 폭력이 없는 친구와 함께하는 신나는 학교, 재미있는 등하교길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섰다.

인제읍 청소년 방범단은 지난달 27일 저녁 인제읍 사거리에서 학교 폭력 근절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을 위한 캠페인을 갖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캠페인을 벌인 인제읍 청소년 방범단은 지난달 18일 인제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인제중학교 2·3학년 12명으로 발대식을 가졌다. 인제읍 청소년 방범단은 단원 2명이 매주 2회 2시간씩 학교 범죄 없는 아름다운 인제



만들기에 동참하기 위해 하교하는 학생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인제읍사무소>

대장부, 뼈를 말 가족에 싸 장사 지내는 법

물아일체(物我一體), 아니 검인일체(劍人一體)의 새로운 경지가 백동수의 눈앞에 펼쳐졌다. 마치 못 꽃을 희롱하며 날아 오르는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가 하면 참새를 낚아채는 날카로운 사마귀의 앞발과도 같았다. 나가고 물러섬이 사시(四時)의 운행처럼 치밀했고 들고 나는 모습이 조수(潮水)의 진퇴처럼 정교했다.

백동수는 그 경이로움에 말을 잊지 못하고 그저 사부인 김광택의 사위 하나 하나를 머리 속에 각인시켜려 애를 썼다. 그러나 그 경지는 단순히 외워서 익혀지는 것도 아니며 그저 의욕이 앞선다고 생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백동수도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다. 조식(調息)을 통해 정신을 가지런히 하고 천지의 기운을 느끼고 순응할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선(禪)의 산물이라는 것, 돈오점수(頓悟漸修)를 통해서만 다다를 수 있다는 마모되지 않은 진리.

백동수는 월도를 굳게 잡았다. 단전에 기를 몰아 넣어 몸을 가벼이 하고는 발뒤꿈치를 들어 두 엄지 발가락에 온몸의 무게를 실었다.

용약재연세(龍躍在淵勢). 마치 용이 물속에서 튀어 오르는 기세로 월도를 곧추 세웠다. 이어 신월상천세(新月上天勢)로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어 오른손 앞을 힘차게 찌르고 곧바로 맹호장조세(猛虎張爪勢)로 연이어 오른쪽으로 세번을 돌며 베고 나가는 품세의 궤적이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날카로운 월도 칼날에 맞부딪친 차가운 달빛은 번뜩이며 하얗게 흩어져 어둠 속으로 흩어져 갔다.

지조렴익세(執銳以馬)鳥斂翼勢: 사나운 새가 날개를 접는 모양새)서 금룡전신세(金龍纏身勢: 누런 용이 몸을 감는 모양새)를 거쳐 오관참장세(五關斬將勢)에 이르는 품새는 아름답기가 그지없어 마치 날개를 접었던 봉황이 날아 오르는 우아함의 극치로 치달았다.

오관참장세(五關斬將勢). 백동수의 스승인 김광택이 유난히도 아끼던 품새였다. 때문에 기회 있을 때 마다 김광택은 그 정신을 백동수에 강조하곤 했다. 그 모양새의 그럴듯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녹아있는 정신을 읽고 그것을 몸에 익혀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해 왔다.

굳건한 의리로 어떤 어려움도 능히 뚫고 나가 몸을 바로 세워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충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무인의 길이라는 게다. 이는 한수정후의 인을 걸어두고 금은보화와 10명의 미인 조차 손끝하나 대지 않고 고스란히 남겨 놓고 제 주인을 찾아간 운장 관우가 갔던 의리의 길을 기리는 것이니 어찌 허투루 그 품새를 익히겠는가.

후한 건안 2년(서기 200년) 황실을 농락하던 조조에 대해 유비는 서주에서 거병하고 하비성을 관

기린협에서의 아내 백동수

49. 초대하지 않은 손님(2)

박영호의 상상 풀어내기



우에게 맡겼으나 조조의 모사 정욱의 계책에 말려 토산에 고립됐다. 이에 조조는 관우와 친분이 있던 장료를 보내 설득함으로써 관우는 조조의 군영에 머무르게 됐다. 그러던 가운데 관우는 유비가 하북 원소 군영에 불모 아닌 불모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 명의 유비 부인을 모시고 길을 떠났다.

그러나 관우가 가는 길이 평탄치 않았다. 동관령에서 공수를, 낙양에선 태수 한복과 맹탄을, 사수관에서는 변희를, 형양에서는 태수 왕식을 활주 황하 관문에서는 하후돈의 부장 진기를 베고 다섯개의 관을 돌파했으니 이를 두고 과오관육참장(過五關六斬將)이라 이른다.

그 고난과 의기를 품새에 남기고 있으니 무인 된 자로써 어찌 가벼이 여길 수 있으며 함부로 익힐 수가 있겠는가. 창룡귀동세(蒼龍歸洞勢). 백동수는 푸른 용이 동굴로 되돌아 가듯 월도를 수습해 월야

옮겨와 장사 지내는 것을 받아야 하거늘 어찌 침상에서 편안히 누워 여자의 시종을 받으며 죽을 수 있겠는가란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었다.

그렇듯 백동수가 마지막으로 스승을 떠나 보낼 때도 역시 김광택은 손에서 검을 놓지 않았다. 그때 백동수의 나이 열아홉. 김광택을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은 지 3년째 되는 해이다.

그해 백동수는 평생의 스승이었던 김광택을 여의었다. 동대문 부근 쌍리문동(雙里門洞) 스승의 사저에서 있었던 스승의 장렬함은 무인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엔 충분했다.

스승의 거처는 부셔져 난장판이나 다름이 없었고 바닥에는 여러 개의 주인 없는 검과 도가 흩어져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치열한 격감이 흔적이 선명했다.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다녀간 것이다.

그리고 스승인 김광택은 예도(銳刀) 굳게 잡고 있어서 운명한 채 그대로 있었다. 아무리 백발이 성성한 노구일지언정 검선에 검보를 이어받은 스승 녹록하게 당했으리가 없을 터. 그렇다면 흩어져 있던 검과 도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이며 그들은 왜 검을 놔두고 갔단말인가.

백동수는 우선 스승의 시신을 수습하고는 흩어져 있던 검을 한 곳에 모았다. 그리고는 차근차근 살폈다. 그랬다. 스승은 한두명의 적을 상대한 것이 아니었다.



24반 무예협회 통영한산도대첩 축제 활동<사진제공:24반무예협회>

참선세(月夜斬蟬勢)로 이어가면서 스승인 김광택의 숨결을 느꼈다. 자신이 월도보를 이어가면서 마치 자신이 스승이고, 또한 스승이 자신이 된 양기일체(兩氣一體)의 경지에 도달했다.

김광택은 늘 백동수에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하며 한시라도 몸이 게을러지고 마음이 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살아도 검과 함께 살아야 하면 죽을 때 역시 손에서 검을 놓지 않고 죽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후한 광무제 때 북방장군에 오른 마원(馬援)이 말했다고 하는 男兒當效死於邊野以馬革裹(衣)屍遷葬 何能臥上在女子手中耶(사내 대장부는 마땅히 변방 전장에서 싸우다 죽어 뼈를 말 가족에 싸여

일단의 무리들이 들이닥쳐 습격을 한 것이다. 특이한 것은 스승의 몸에 난 자상들이다. 큰 칼에 베이기도 했지만 작은 칼에 찔린 것이 치명적인 상처였다.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검법이 아니었다. 백동수는 어렵פות이나 알 것도 같았다. 바로 스승에게서 들었다. 니토류(二刀流)검법이였다. 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검법으로 알려진 니텐이치류(二天一流)검법이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바로 검법서(劍法書)를 찾으러 온 자들이란 말인가. 검법서는 일본의 전설적인 무사 미야모토 무사시(宮本武藏)의 저서로 오륜서와 함께 잘 알려진 책이지만 오륜서와는 달리 은밀하게 전해지고 있다. <계속>

무에도보통지 편찬에 직접 참여했던 조선 후기 최고의 무인인 백동수가 인제 기린협에서 생활했던 역사적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인제군 무예 자원의 발굴과 문화관광 자원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녹색성장 포럼을 마련한 바 있다. 따라서 18세기 후반 조선시대를 조명한 각종자료를 참고로 백동수의 기린

협에서 생활 재구성해 풀어 나가고자 한다.

현재 전개되는 기린협에서의 아내 백동수의 이야기는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에 의거한 픽션으로 역사적 사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읽는이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3월 (상하수도 사업소)

군정에모판

고엽제 전우 인제군지부 설립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월 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는 파월 장병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고엽제 피해 전우회 인제군지부 설립을 위한 회원가입을 접수받고 있다.

그동안 고엽제 피해 전우회 인제군지부가 없어 회원에 가입하려면 흥천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제지부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지부 설립을 통해 회원간의 우의를 다지고 전우들의 권익을 지키는 기틀 마련에 많은 전우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및 접수는 전화(☎010-5368-2557 · 033-461-2557)하면 가입절차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마약류 특별자수기간 운영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는 전국 검찰청·경찰서를 직접 출석 또는 전화로 자수하면 되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선처하고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기회를 부여하고 신고자에 관련 사항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신고 및 상담은 춘천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마약수사 담당관(국번없이 1301 · ☎033-240-4572)으로 하면 된다. <춘천지방검찰청>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 안내

국민연금공단 흥천지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이며, 지원수준은 사용자 부담금 및 사업장 가입자 기여금의 각 절반 수준이다. 신청은 사용자가 해야 하며 기존사업장은 보험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신규사업장은 당연 적용 해당 신고서에 신청여부를 기재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에대한 문의는 공단 흥천지사(☎430-5410)로 하면 된다.

수질기준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이연	염소이온	철	망간	잔류염소
	100CFU/ml	음성/100ml	음성/100ml	0.5mg/l	1mg/l	1mg/l	250mg/l	0.3mg/l	0.3mg/l	4mg/l
덕산 정수장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2	불검출	불검출	0.81
부평 정수장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8	불검출	불검출	0.72
용대 정수장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11	불검출	2.5	불검출	불검출	0.66
천도 정수장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8	불검출	불검출	0.71
현리 정수장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3	불검출	불검출	0.71
상남 정수장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4	7.3	불검출	불검출	0.70
서화 정수장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2	불검출	불검출	0.69

리빙스톤교 5월1일부터 한달간 통행제한

인제읍 합강3리, 속칭 소열서 덕산리를 잇는 리빙스톤교가 오는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통행이 제한된다.

인제군은 노후된 리빙스톤교 보수보강 공사를 위해 통행제한이 불가

피함을 알리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제군과 시공사인 삼조건설(주)은 주민들의 통행제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따라서 평소 리빙스톤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인제 농어촌도로 101호 선다합강교→국도 31·44호선으로 우회통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안전건설과 토목담당(☎033-460-2092) 또는 삼조건설(주)(☎033-253-9422)으로 하면 된다. <안전건설과>

블랙박스 · 스마트 폰

교통위반 동영상 접수

무의식적으로 교통질서 지키지 않는 관행을 뿌리 뽑고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제경찰서는 블랙박스·스마트 폰 등에 담긴 교통 법규 위반 동영상 신고를 접수 받는다.

이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담고 있는 동영상을 확보한 주민은 인터넷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접속한 다음 '신고민원 포털' 항목을 열고 '교통법규위반신고' 클릭해 신고자 정보입력 후 '증거영상' 첨부해서 업로드하면 된다.

이와 같은 교통위반 동영상을 통해 집중적으로 접수 받는 점 신고 항목은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 주행 등 교통위반 사례이다.

이와 함께 급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은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위반행위, 운전 중 담배꽂초 불법 투기행위 등도 신고 대상이다.

인제경찰서는 신고 동영상은 반드시 위반 일시 및 장소는 물론 위반차량 번호가 명확히 들어나 증거자료(영상) 기본요건 갖춰야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문의는 인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033-461-1190)로 하면 된다. <인제경찰서>

5월 무료 정보화 교육 안내

과 정	기간	시간	장소
엑셀 기초	1일~16일	10:00~12:00	인제 교육장
파워포인트	1일~16일	13:30~15:30	
엑셀 심화	19일~30일	10:00~12:00	
이미지 편집 기초	7일~16일	10:00~12:00	원통 교육장
이미지 편집 활용	19일~30일	10:00~12:00	
한글 문서 편집	19일~30일	13:30~15:30	

교육관련 문의는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460-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5월12일 실시

풍수해·지진·해일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오는 5월 1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인제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훈련 첫날인 12일에는 재난안전대책 점검 및 유해화학물질 대응훈련으로 산불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둘째날인 13일에는 지진·지진해일 훈련으로 오후 2시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해 주민 대피 및 절전 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산불재난 현장 대응 훈련도 치른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풍수해 복합 재난대응훈련으로 도상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인제군 자연재난이나 대형 재난 등 긴박한 상황이 발생해 주민 대피가 시급할 경우 재난위험경보가

발령되면 질서를 지켜 대피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보음은 3분간 파상음으로 울리며 ▶민방공 공습경보는 5초 상승, 3초 하강이 반복된다. 이와 같은 경보음을 들었을 때는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재난위험경보는 2초 상승, 2초 하강이 반복되며 이와 같은 경보음을 들었을 때는 땅위로 대피해야 한다. 인제군은 5월 13일 오후 2시에 재난위험경보가 발령되면 지진·절전 훈련으로 소등 후 지상의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고 지진해일 훈련일 경우는 대피소나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운전중인 주민은 자동차는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안전건설과 안전방재담당(☎033-460-2096)으로 하면 된다. <안전건설과>

간첩, 테러범, 방산스파이, 사이버테러, 군사 보안신고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7 국군기무부대로

세무회계 소식

농기계 임대사업소 공과금 수납기 최초 설치

인제군이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전국 최초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했다.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부근 금융기관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소 내에 공과금 수납기를 설치한 가운데 앞으로는 원스톱으로 임대를 할 수 있게 됐다.

농업기계 임대료와 순회수리 부

품비의 고지서가 매년 1천800여건이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보통 시외에 자리하고 있어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한 후 시내의 다시 금융기관까지 가서 납부한 후 임대사업소로 되돌아와 농업기계를 싣고 가거나 농업기계를 싣고 가다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NH농협은행 인제군지부(지부장 강영진)의 협조

로 전국 최초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하게 된 것.

따라서 임대료가 많지 않고 금융기관에 가는 불편함 때문에 납부를 소홀하다 임대료 체납자가 늘어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인제군은 기린면과 상남면 농업인을 숙원이었던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기린면 현리에 지난 14일 착공한 가운데 늦어도 내년이면 이곳에서 임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인제군은 지난 1월1일 기준 11만 730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 제출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

생한 토지에 대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열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산정·검증된 토지에 대해 인제군은 이 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은 후 담당자와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등을 거쳐 처리결과를 개

별 통지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별공시지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과표담당(☎033-460-2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회계과>

긴급민원 신고 119 통합운영

인제소방서(서장 김용락)는 재난 사고 및 긴급민원 신고와 관련, 인지도가 높은 119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119신고 확대서비스'를 알리고 있다. 이번

에 119로 통합되는 서비스는 123(전기), 121(수도), 128(환경), 1366(여성긴급), 1577-1366(이주여성긴급), 1388(청소년상담), 1577-0199(자살), 1577-1389(노안학대), 1577-1391(아동학대), 1588-3650(재난), 1330(관광통역안내), 1345(외국인

종합안내), 1544-4500(가스), 지역 도시가스 회사번호 등 14종이다.

이와 관련해 신고하고자 하는 주민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위의 번호로 신고해도 되지만 119로 전화해도 긴급민원이 접수 처리돼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제소방서>

군정메모판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고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재활보조금, 생활자금무이자 대출, 장학금,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자동차사고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의한 1급~4급 장애)를 입은 사고당사자 또는 자동차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만 0~18세 미만의 어린 유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이하) 등이다.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지원업무담당자(☎033-261-5000)로 하면 된다.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주택연금제도 가입 홍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살고있는 집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안내를 하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에서 보증하고 강원도가 권장하는 이 제도는 부모공양과 자식 교육을 마친 후 집 한 채만 남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집에서 부부가 평생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금 혜택을 받다가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연금액을 집값과 비교해 모자라면 정부가 부담하고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국가보증제도이다.

이에대한 문의는 공사 강원지사(☎259-3615)로 하면 된다.

기르는 개 7월부터 등록 필수

인제군은 오는 7월1일부터 인제읍과 북면 지역에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집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3개월 이상 된 개는 기르기 시작하지 3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20만원부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은 인제동물종합병원(☎461-3960), 낭만강아지(☎ 070-4157-1156), 꾸러기 애견샵(☎463-7455)으로 하면 된다.

이에 대한 문의는 농업기술과 축산 지원담당(☎033-460-2265)으로 하면 된다. <농업기술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6월 4일(수) 투표할 수 없다면
5월 30 ~ 31일
사전투표하세요

누구든지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 ▶ 투표기간 5. 30.(금) ~ 31.(토) 오전6시 ~ 오후6시
- ▶ 투표장소 3,500여개 읍·면·동 사전투표소 중 편리한 곳
-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하나)

* '사전투표'는 투표구별로 각각 작성하였던 선거인명부를 전신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관청으로 통합 작성하여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2013. 4. 24. 제·보궐선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표대
대한민국의 투표문화를
더욱 밝게 합니다.

가림막이 없어도
투표의 비밀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내린 이웃



인제읍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특강

인제읍주민자치회(회장 박유정)는 회원과 인제읍 마을 이장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2일 인제읍 대회의실에서 강원발전연구원 김주원 선임연구원을 초빙해 지방자치 뿌리,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자치역량강화 특강을 마련했다.

이번 특강은 인제읍 주민자치회가 시범마을 선정에 따른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민주역량을 강화해 살기 좋은 인제읍을 만들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인제읍사무소>

남면 독거노인집 수리 봉사활동

인제군 남면사무소 직원 일동은 지난 15일 김종문어르신(90·남면 신남리) 집을 찾아 집안 내부 청소 및 주변 환경정리와 침구류 세탁 등의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 활동은 김종문어르신이 고령인데 움직임이 불편한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라는 점에서 첫 집수리 봉사 활동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보살필 계획이다. 또한 남면사무소는 이번 봉사 활동이 일



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대상자를 선정해 꾸준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남면사무소>

원대리 주민 화재농가 성금전달

인제읍 원대리이장 조남명은 지난 2월 발생한 화재로 유리 온실을 태우고 실의에 빠져

있는 같은 마을 장우덕씨(우정농장 대표)을 지난달 28일 방문한 가운데 마을 주민이 모은 성금 350만원을 전달하고 위로 했다.

<인제읍사무소>

SFTS 예방 수칙 안내

진드기 4월~11월 활동시기 주의각별

인제군은 지난해 국민적 불안감을 증가시켰던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매개하는 진드기의 활동시기인 4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를 방문해 기피제를 받아 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외 활동 중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긴옷을 입고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야외활동을 마친 후 곧바로 샤워 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도 알리고 있다.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 활동할 때=▷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고 눕지 않는다. ▷뚫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해 햇볕에 말린다.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는다.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한다. ▷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는다.

▶야외 활동 후=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한다. ▷샤워나 목욕한다.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한다.

이에 대한 문의는 보건소 예방의약담당(☎033-460-2243)으로 하면 된다. <보건소>

이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으세요 !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역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다음 서명을 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 및 병행 사용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합강내린 인제

지역 소식

기린면 봄맞이 대청소 실시

기린면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협의회, 13항공단, 공무원 등 모두 100여명이 참여해 기린면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지난달 21일 기린면 시내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날 소방차와 소화전을 이용해 지난 겨울 제설을 위해 뿌려진 염화칼슘과 모래 등을 제거하기 위한 물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도로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거리환경 미화작업도 함께 펼쳤다. <기린면사무소>

2014 가족봉사단 발대식 가져

인제군자원봉사센터는(센터장 고재욱) 지난 달 29일 인제EM환경센터에서 2014가족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올해 활동에 본격 들어갔다.

이번 발대식에는 가족봉사단 39가족 132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어려움을 함께 나뉘 아름다운 인제 건설을 다짐했다. 특히 가족봉사단은 봉사활동을 통해 가족간의 끈끈한 유대를 강화시키



는 사회 활동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아가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제우체국 식목일 행사 개최

인제우체국(국장 연장길)은 제69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9일 인제우체국 청사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와 함께 깨끗한 거리 만들기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제우체국 전 직원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면서 우체국청사 화단을 새로운 경계석으로 정비하고 철쭉과 장미를 심었다. 이와 함께 깨끗한 거리 만들기 행사로 인근



도로와 골목에 버려진 담배꽂초와 휴지 등 쓰레기 청소를 실시했다. <인제우체국>

☑ 기린고등학교 행복한 학교만들기 NIE 중요성 등 교육 실시

기린고등학교(교장 최동덕)는 새 학년을 맞아 학생·학부모·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행복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NIE를 통한 창의적 학습능력 신장'이라는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 대상 특강과 함께 'NIE로 시작하는 교실 수업의 변화'라는 주제로 교원 연수를 마련했다.

박미영 강사(한국 신문협회 NIE 컨설팅 위원, 한국 NIE 협회 대표)의 진행으로 실시된 학생·학부모 대상 특강에서는 NIE의 중요성과 활용 방법 및 신문 스크랩이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교사대상 연수에서는 실제 교실 수업에서 NIE를 활용하는 방법, NIE를 통해 예측·판단·문제해결력 등의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기르는 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논리적·비판적 사고력

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고 교사들에게는 효율적인 진로·진학 지도와 교수·학습 방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행복한 학교 만들기 주요 프로그램은 '신문 활용교육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으로 미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가정의 날' 운영을 통한 밥상머리 교육으로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꿈 명찰 달기' 운동을 통한 내만의 꿈 찾기로 올바른 진로교육을 실현함은 물론 '생활협약 실천'을 통한 배려와 존중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만들기가 가능토록 한다. 이와 함께 '어깨동무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즐거운 학교 분위기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린고등학교〉

컬투 5월 · 모여라 덩동댕 6월 하늘내린센터 공연

인제군문화재단은 신록이 짙어가는 봄날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뜻 깊은 공연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주민의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인제문화재단은 오는 5월

10일 인기 개그 듀엣인 컬투를 인제하늘내린센터로 초청해 '컬투 쇼-피아' 공연행사를 펼친 후 이어 6월18일에는 EBS공개방송 '모여라 덩동댕' 공개녹화를 준비하고

있다.

공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제하늘 내린센터 홈페이지(www.injeart.or.kr) 인제군문화재단(☎033-460-89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전기요금 감면혜택

한국전력 인제지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특별조사와 관련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알리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등은 해당 월 전기요금을 최고 8천

원까지 할인해준다.

이들 가운데 주민등록상 아들 3인 또는 손자·녀 3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월 전기요금의 20%(월 1만2천원 한도)까지 할인해준다. 이에 대한 문의는 한전 콜센터(☎123)나 한국전력인제지사(☎033-460-4242~3)로 하면 된다.

〈한국전력 인제지사〉

국군 유해발굴 협조당부

육군 제7877대대(부대장 박채원 중령)는 군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제7877대대는 하루에 장병 130여 명을 투입해 오는 28일

부터 6월5일까지 상남면 김부리 상단지골과 백지동 일원에서 6·25전쟁 중 조국을 지키다 신화한 호국용사 유해를 발굴해 국립 현충원에 모시고 있는 국가적 숭고한 호국보훈 사업에 들어간다. 따

라서 6·25전쟁 중 호국용사가 전사한 장소나 소문을 알고 있는 주민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한 연락은 제7877부대 1중대장 이상훈 대위(☎010-3388-3624)로 하면 된다. 〈상남면사무소〉

● 인제우체국 소식

인제 곰취 전국 택배판매 시작

인제우체국(국장 연장길)은 인제읍 귀둔리에서 재배한 곰취를 작목반과 연계해 지난 14일부터 전국에 택배 판매를 시작했다.

곰취 판매가격은 택배비를 포함해 1kg 들이에 1만4천원, 2kg 들이는 2만4천원이다.

특히 우체국 택배 판매는 고객이 신청한다

음날 채취해 상품을 발송하기 때문에 신선도와 맛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인제 곰취는 2010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제 등록(제32호)식물로 지정됐으며 2011년도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산나물 특구지역으로 선정된 인제군의 5대 명품 중 하나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인제우체국〉

해킹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

컴퓨터,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인인증서 등 중요 정보는 PC에 저장하지 마세요.

택배 운송장을 버릴 때 개인정보는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하세요.

PC에 정품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PC방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PC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하지 않는 계정(사이트 ID)은 방치하지 말고 탈퇴하세요.

2014년 8월 7일 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체에 회원관리, 고객관리용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마세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PC방, 미용실, 학원, 소모품센터,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식당, 영리관,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경품응모, 유통·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합니다.
예) 병원(의료법), 약국(의료법), 학교(초·중등교육법), 세무실(소득세법) 부동신거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보험(보험업법) 금융거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격증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등

민간행정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법국민운동본부

인제RCE 활동

전통 문화 등 생활문화 강연 마련

유엔(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는 경제발전, 환경보전, 사회정의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인제군의 발전을 위해 생활 속에서 전통문화와 예술을 통한 주민들과의 다양한 생활문화 강연과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문화예술을 통해 개인의 건강과 신명난 삶을 추구하고 풍류문화를 통해 천지인합일(우주-자연-사람과의 일치)정신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수련하는 가운데 자신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제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며 인제가 평화생명통일문화의 중심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미 서성초등학교, 서화초등학교, 인제초등학교, 인제문화원, 설악산배움터, 인제청년사랑회 등과 함께 매주 정기적인 풍류문화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참가를 원하는 단체와 기관은 인제RCE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학생 문화 · 역사 현장 탐방 진행

유엔(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인제RCE)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알기를 통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문화 · 역사 현장탐방을 6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관내 초등학교 15명이 참여해 지난달 29일 마의태자 유적지 방문을 시작으로 갑둔리 동학유적을 탐방한데 이어 앞으로 인제군 관내 역사유적지를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문화 · 역사 현장탐방은 단순히 현장을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적지에 얽힌 역사와 유래에 대한 설명과 자체연구를 통해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장탐방이 마무리되면 참여한 학생들이 스스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제RCE 알림

농번기 등 이유 5월 정기강좌 연기

매월 첫째주 수요일 열리는 5월의 인제생명사회 정기강좌를 휴강한다. 1년 중 가장 바쁜 농사철과 산불기간이 겹쳐 군민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어려워 5월 7일 예정된 8차 정기강좌를 6월 1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추진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과 유엔(UN)지속가능발전교육인제전문센터(RCE)는 학생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 이후 학교와 가정에서 지속가능한 생활을 적극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추진한다.

인제RCE에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 지속가능발전 영상물을 상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해 그림과 문답으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강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포스터와 재생에너지 체험도구를 전시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으로 있는 가운데 관내 학교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인제 생명사회 정기강좌

인제생명사회 제7차 정기강좌는 호사카유지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을 초청해 일본의 최근 상황과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호사카유지 소장은 근·현대 한일관계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2003년에 한국으로 귀화해 세종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년 국회도서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대한민국 독도 교과서, 일본에 절대 당하지 마라 등 독도연구 전반에 걸쳐 새로운 자료와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일본 이기려면 강력한 논리 개발해야

호사카 유지 독도연구소장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 호사카 유지는 지난 2003년에 귀화를 했지만 일본이름 그대로 발음나는 데로 사용하고 있다. 원래는 호씨로 성을 짓고 싶었지만 법무부에서 호씨는 중국인이라고 오해 할 것 같이라며 호사카라는 일본이름을 사용하다 좋은 이름이 있다면 후에 가정법원을 통해 변경하려고 했는데 귀화한지 벌써 11년차에 접어 들에도 호사카 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교수는 '바람직한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해 삼년 정도는 대립관계로 가야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다. 그 원인이 한국에 있다기보다는 일본, 즉 현 아베신조라는 총리가 있는 아베정권이 라는 상당한 특색이 있는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베정권은 경제적으로도 약해지고 대지진으로 국제적 방사능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서 탈피해 강한 일본을 되찾아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인접국과 충돌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는 지금의 일본을 이해하려면 아베신조의 성장과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동아 공영을 주장하며 한반도 침략과 동남아시아 침략 발판을 만들었던 요시다 쇼인에 대해 소개했다.

요시다 쇼인의 신도를 자칭하는 아베 정권은 운명적으로 우경화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태평양 전쟁을 정당화 하는 아스

카니 신사 참배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와 같은 아베신조의 최종적인 목표는 국제적인 대결구도를 만들어 긴장을 고조시켜서 자위대 수준을 탈피해서 명실상부한 일본군 창설이라는 저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와 같은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논리를 개발해 일본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베신조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오 히로부미 사살 의거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테러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이야말로 테러국이라고 반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문제에 대해 일본은 지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정리됐다고 발뺌하기 때문에 공적인 관점에서는 완결됐다고 볼 수 있지만 사적인 부문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해방이후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일본으로 건너간 일본인들이 한국에 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바 일본법원은 공적인 부분이 정리됐지만 그것은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강제노역에 대한 일본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고노담화를 정치적 판단으로 몰고가면서 사문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